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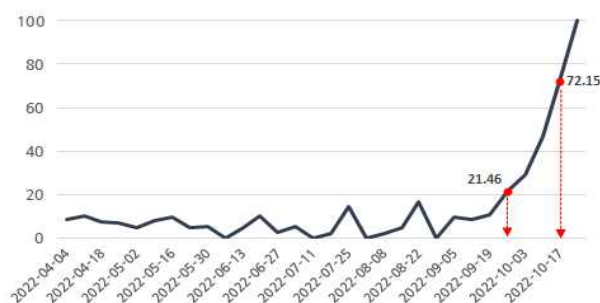
요약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해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단기금리 상승과 보험회사의 자산 증가 정체가 지속되는 경우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차이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저축보험의 해지는 지속될 수 있음.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계약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보험 소비자의 계약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해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의 ‘저축보험 해지’ 검색량은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0월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 변액, 연금, 종신보험 등과 같은 다른 보험종목들의 해지 검색량은 동기간 큰 변동이 없었음
 - NAVER DataLab에서 제공하는 검색량 정보는 검색량이 최대인 시점을 100으로 환산한 상대적인 검색량 정보를 보여주며, ‘저축보험 해지’의 주간 검색량은 9월 넷째 주(21.46)부터 증가세가 시작되어 10월 셋째 주(72.15)에 급격히 증가한 후 10월 넷째 주 100으로 최대치를 기록 중임
- 저축보험의 해지 관심 증가는 보험회사 저축보험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예·적금상품의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며, 언론에 따르면¹⁾ 저축보험 해지 관심 증가가 실제 해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1〉 저축보험 해지 검색량 추이



○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과의 비교가 용이한데,²⁾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9월 말에서 10월은 보험회사 공시기준 이율을 상회하기 시작한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된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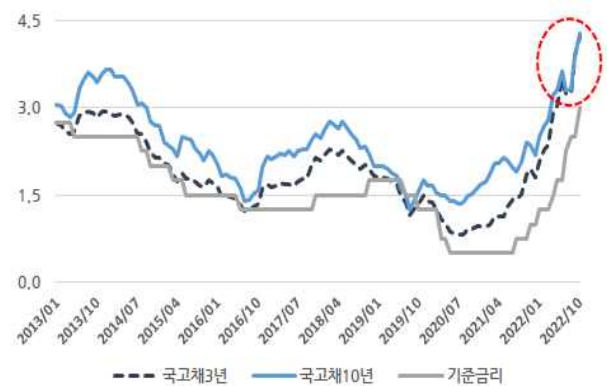
- 주로 장기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은 장기금리 수준에 민감하고 은행 예·적금 금리의 경우 단기금리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는데,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는 2022년 9월 역전되면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 보다 높은 상황임
- 한편, 한국은행은 7월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7월 13일(1.75%에서 2.25%로 50bp 인상), 8월 25일(2.25%에서 2.50%로 25bp 인상), 10월 12일(2.50%에서 3.00%로 50bp 인상)) 인상하였으며, 10월 발표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저축보험은 수수료를 선취함으로써 중도 해지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지 유인이 떨어지지만,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고 금리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축보험의 해지 패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지율이 일시에 급등할 수 있음

〈그림 3〉 금리차 추이



주: 1) 2019년 1월~2022년 9월 월간 자료임
 2) 2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4년 미만/4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단순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그림 4〉 시중 금리 추이



주: 2022년 10월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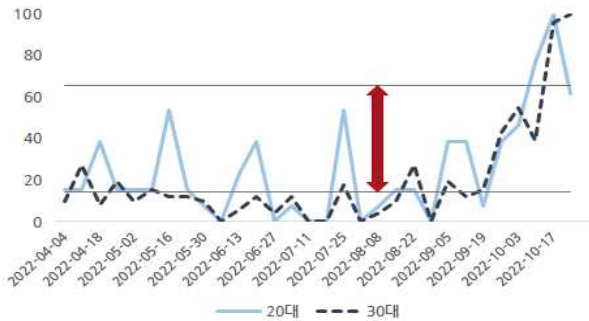
○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에 비해 40~50대 이상 연령대의 관심 증가가 두드러지며, 40~50대 이상 연령대의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금이동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탈은 보험회사의 자산 감소에 상당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30대의 경우 2022년 10월 이전과 이후 해지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둔화되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40~50대 이상의 경우 2022년 10월 이전과 이후 해지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폭이며, 10월 이후 가파르게 관심도가 증가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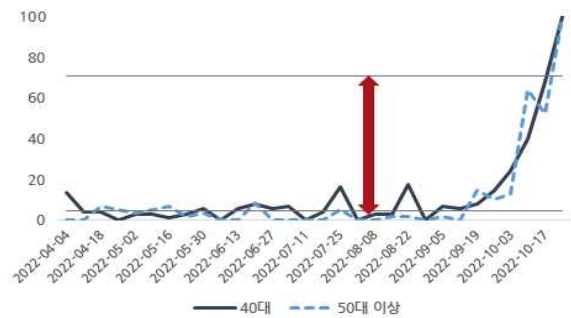
2) 김세중·김혜란(2022. 9. 19), 「최근 금리변동과 저축보험 동향 및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40~5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자산 규모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서 자금이동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

〈그림 5〉 연령대별 해지 관심도 비교(20~30대 vs. 40~50대 이상)



주: 2022년 4월~2022년 10월 기준 주간 자료임
자료: NAVER DataLab



주: 2022년 4월~2022년 10월 기준 주간 자료임
자료: NAVER DataLab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와 해지 증가로 자산규모가 정체되면서 고금리 채권 신규 편입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차이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저축보험의 해지는 지속될 수 있음
 - 현재 글로벌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예·적금 금리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유입된 보험료와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을 통해 장기 고금리 채권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수입보험료 감소와 해지 증가로 자산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임
 -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보험 해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저축보험 계약 이탈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채권매각에 따라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저축보험 소비자의 계약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금융상품 간 수익률 격차에 의한 소비자의 머니무브 현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유지를 위해 저축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임
 - 한편 2012년 세제혜택 변경에 따라 가입이 급증했던 저축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기 보험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저수수료 저축보험 설계, 노후자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